

“인간적 체취 담은 책이어야 한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와 《야만인의 절규》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사자는 정글에서 날마다 잠이 든다. 날이 밝고 아침이 와 가장 걸음이 느린 가젤(사슴의 일종)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임을 알면서, 가젤은 정글에서 밤마다 잠이 든다. 날이 밝고 아침이 와 가장 걸음이 빠른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밥이 되고 말 것임을 알면서, 그래서 사자가 가젤이나 그때 모두 알고 있다.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극도로 살벌한 경쟁체제를 일컬을 때 흔히 인용하는 이야기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궤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망도 유토피아도 이상도 아닌, 그렇다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네트화라는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합목적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남보다 빨리 달리면 이긴다는 사고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몰고온 불안

그런데 전 세계를 관통하는 기술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매뉴얼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 보드리야르는 “문화란 테크놀로지 속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은 테크놀로지를 똑같이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셜 맥루한의 조수이자 공동집필자였던 데릭 드 케르코프도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는 알파벳의 등장에 필적한다면서 “알파벳이 모든 이들에게 사고를 위한 공통된 인프라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는 사람은 한명 한명이 완전히 독립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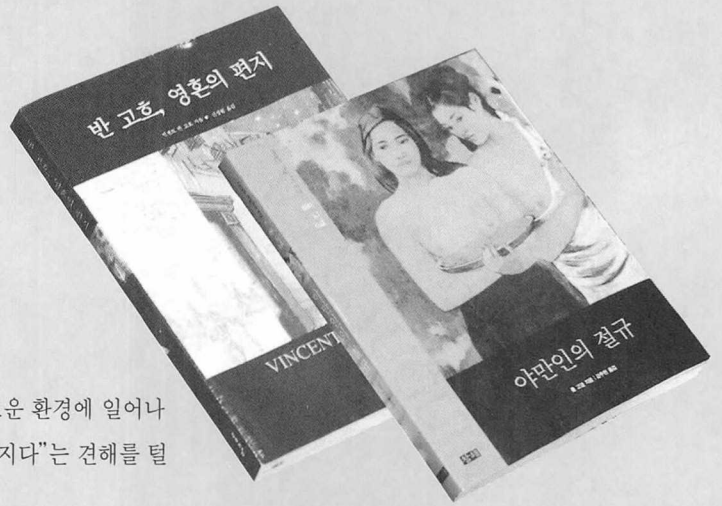
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새로운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는 견해를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즉 디지털은 유토피아에 가까운 이미지였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우리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는 21세기에 도달했음에도 “기술의 새로운 합목적성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기술적 발전은 하나의 가치시스템 전체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책에 대한 우리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천착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만사를 무조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다. 그러다 보니 책 자체의 본명은 무시된 채 ‘의사(擬似)책’에 온통 관심을 쏟아붓는 오류를 저질렀다.

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가족이나 연인 등 최소한의 인간관계만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모두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만큼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앞으로 우리는 ‘길모퉁이에서 맥주를 사거나 담배 가게에 갈 이유’조차 잊게 될 것이다. 아서 니호프는 《사람의 역사》(남경태, 푸른숲)에서 남녀관계에도 섹스만 남을 것이라 했지만, 섹스마저도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하는 편이 더욱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불안에 빠트린다.

아니 이것은 공포다. 이미 우리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세계인지 모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앞으로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진짜 인간을 기계인간과 분리해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은 진정



한 인간다움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바로 독립된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 체취를 느끼게 하는 책의 가능성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신성림 옮김, 예담)는 바로 이런 분위기에 맞는 책으로, 인간의 ‘체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작년 6월에 출간된 이후 1년 2개월만에 소리소문 없이 3만 5천부가 판매됐다. 예담은 이후 베토벤, 폴 고갱, 모차르트, 몽크에 대한 책들을 이미 펴냈거나 펴낼 계획이다.

창해에서 기획한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 시리즈도 같은 개념의 책이다. 폴 고갱이 아내와 화가 친구들, 예술비평가들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엮은 《야만인의 절규》(강주현 옮김)를 비롯한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외젠 들라크루아 등 예술가들의 생생한 ‘육성’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글과 함께 제시되는 화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 편지 원본, 스케치, 사진 등은 인간다움의 깊이를 느끼게 해 황량한 삶에 크나큰 위안을 준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지는 못한다. 사이버 세계가 아무리 인간다움을 추구한다 해도 인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안겨주는 ‘불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흐름에 맞는 책은 앞으로 시장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